

三佛 金元龍教授와 大學博物館

崔 夢 龍*

삼불 김원용선생님은 1922년 8월 24일 평안북도 泰川에서 나서서 古稀를 이태 지난 1993년 11월 14일 타계하셨으니 향년 72세로 천수를 누린 셈이다. 학력으로 당대 최고의 명문인 제일고보와 경성제대를 거쳐 미국 뉴욕대학대학원(문학박사학위 취득)졸업과 영국 런던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하셨다. 업적으로는 《한국고고학개설》, 《한국미술사》와 《한국문화의 기원》을 비롯한 십여권의 명저를 내놓으셨다. 그간 선생님은 서울대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원장, 한국고고학연구회 회장, 국립박물관 관장, 문화재 위원장과 학술원 회원 등을 역임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한국대학박물관협회와는 참 인연이 없으셨는가 보다.

삼불 선생님은 1962년 8월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시었고 이어 그해 11월 서울대학교 박물관장이 되시면서 본 박물관과의 인연을 맺으셨다. 당시 박물관은 서울대학교가 동승동에 자리하고 있을 때 였으며, 당시 본 박물관은 1946년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서울대학교 부속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남아 있었다. 이미 선생님은 국내외 학술대회를 참석하시면서 많은 박물관을 견학하셨을 뿐 아니라 1947년 부터 1961년까지 14년간 국립박물관에 계셨고 누구보다도 박물관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으셨다. 1968년 1년간 런던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하시느라 잠시 박물관을 떠나계셨던 선생님은 1972년에 다시 본 박물관 관장으로 취임하셨다. 1975년 서울대학교 제1단계 이전계획에 따라 관악캠퍼스로 이전함에 따라 본 박물관은 도서관 6층의 일부에 잠정적으로 머물게 되었고 같은해 2월 '서울대학교 박물관'으로 개칭되었다.

1980년에 잠깐 박물관을 떠나 계시던 선생님은 다시 1982년 재차 박물관장으로 취임하셨고, 198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장이 되시면서 박물관장직을 사임하셨다. 선생님은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후 박물관이 독자적인 건물이 없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비좁아 소장품에 대한 전시공간은 물론 작업공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그 해결책을 마련하시느라 절치부심하셨다. 결국 1984년 10월 30일 대운동장 뒷편 예술관 아래쪽 부지에 신축건물을 착공하게 되었다. 선생님의 노고가 없었던들 현재의 독립건물은 없었을 것이다.

* 서울大 博物館長



1994년 11월 16일 전곡리에서 (왼쪽 네번째 김원용 교수)



1994년 11월 16일 전곡리 三佛 金元龍 교수의 散骨處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박물관 관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우리나라의 고고학 발전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유적들을 조사하셨다. 몇몇 유적만 예를 들자면 新昌里 甕棺墓地(전남 광산군 비아면. 초기철기시대. 1963), 梁山 貝塚(경남 양산군 다방면. 원삼국시대. 1965), 風納里 土城址(서울시 강동구 풍납동. 원삼국시대-초기백제. 1966), 欣岩里 住居址(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청동기시대. 1972-1978), 石村洞 積石塚(서울시 강동구 석촌동. 초기백제시대. 1974), 全谷里 遺蹟(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구석기시대. 1979-1983), 鰲山里 住居址(강원도 양양군. 신석기시대. 1981-1985, 1987), 岩寺洞 住居址(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신석기시대. 1983-1984), 夢村土城(서울시 송파구. 초기백제시대. 1983-1984, 1986-1987) 등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총서, 한국고고학연보 등 왕성한 연구활동도 함께 하셨다.

또한 다양한 전시회를 열어 박물관의 기능을 보다 활발히 하는 데 기여하였다. 1964년에는 교수소장품전시회와 想白 李相伯선생 소장품전시회가 열렸고, 1966년에는 이조판화전을, 1972년에는 書畵愛硯小展을, 1973년에는 현대도예작가초대전을, 1974년에는 신라토기전을, 1976년에는 朝鮮名人簡百選展을, 1977년에는 新收出土品展示를, 1978년에는 탁본전을, 1982년에는 발해·고구려·낙랑유물전을 개최하였는데,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고고학, 역사학, 미술사학과 연관된 폭넓은 전시회를 개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렇듯 많은 학계 일과 대외적인 학술활동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대학박물관협회의 사업에 대해 소홀했던 점은 있었으나, 선생님께서 서울대박물관을 유수의 대학박물관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하신 공로를 재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남달리 건강하셨던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떠나가신 지 벌써 3년이 다가온다. 그간 자의반 타의반으로 수차례 글로 선생님을 회상하게 되었는데, 오늘도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교훈들을 다시금 되새기게 해 준다.